

# 통시적 대조자료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성서\*

안 증 환\*\*

---

## 目 次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의의
    -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본론
    - 2.1 근대어 변천자료로서의 성서
    - 2.2 통어구조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 2.3 사회언어학적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3. 결론
- 

## 1. 서 론

###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를 위해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의 자료적 가치를 통시적 관점에서 입증함으로써, 이들 성서를 차후 한일 두 언어 대조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는 데에 있다. 필자(2005)는 1950년대라는 공시적 관점에서 이들 성서가 갖는 대조자료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바 있기 때문에, 통시적 관점에서의 본 연구는 한일 번역 성서가 갖는 대조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다 확고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래 통시적 관점에서 채택된 한일 대조언어 자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7,8세기 조선의 일본어 학습서였던 『捷解新語』와 19세기 초 일본에서의 조선어

---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B402)."

\*\* 한남대 교수, 일어학



(1)(2)와 같은 자료들은 각각의 언어에서 표기법이나 음운연구 혹은 번역사 등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뿐 아니라, 동일한 원전에 대한 번역이기 때문에 성서번역 초기의 특징 등 대조적인 관점에서 활용가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한국과 일본 각각의 언어권에서는 성서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나, 한일 대조적 관점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히로 다카시(廣 剛, 2005)를 근거로 살펴보면, 한국은 크게 초기 번역성경의 底本과 聖書 語彙가 중심적인 연구대상이 된 반면에, 일본은 明治期 성서번역에 사용된 漢字語 및 일본어로 번역된 어휘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서언어를 대상으로 한 한일 대조연구로는, 신혜경(1997)·김좌대(2000)·히로 다카시(2005)·안증환(2005, 2007)등으로 대조연구 자료로는 성서가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혜경(1997)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 대우표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성서언어를 통해서도 한국어가 절대 경어적 성질이 그리고 일본어가 상대 경어적 성질이 강함을 입증하고 있다. 김좌대(2000)는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개역성서(1956)』에 미친 영향을 창세기에 나오는 용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고, 히로다카시(2005)는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에 참고가 된 저본을 추적하면서 일본어와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다.

안증환(2005)은 한국과 일본의 성서언어가 갖는 대조자료로서 의미를 1950년대 한일 성서대조를 통해 입증하고 있으며, 안증환 (2007)에서는 성서원본의 호칭표현이 한국과 일본의 성서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되어 갔는가를 대조하고 있다.

본고는 안증환(2005)와 관련된다. 안증환(2005)가 1950년대 한국과 일본의 성서를 대상으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성서의 자료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면, 본고는 번역초기의 성서로부터 최근에 개역된 성서들을 대상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갖는 자료적 가치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언어범주가 집중적으로 고찰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첫째, 어휘를 중심으로 한 근대어 변천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둘째, 통어구조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셋째, 사회언어학적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등이다. 본고에서 대조대상으로 삼은 성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위 원회역을 중심으로 하되, 예외로 개인역인 한국의 로스역 성서는 대상에 놓기로 한다.

## 2. 본 론

### 2.1 근대어 변천자료로서의 성서

본고에서 말하는 근대어란 일본과 한국에서 성서가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작금의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언어를 의미한다. 현존하는 일본어역 성서 중 가장 오래 된 것이 1837년 귀츨라프(Gützlaff)에 의한 <요한복음>과 <요한1,2,3서>이고, 한국어 성서로는 1882년 로스(J.Ross)등에 의한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이다.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일본어로의 신약성서 번역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이 1880년이고, 로스에 의한 한국어 신약성서가 출간된 것이 1887인 것을 고려하면 성서언어 대조에서 근대어의 출발점을 19세기 후반으로 잡은 것은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어휘부분을 중심으로 근대어 변천에 관해 자료적 가치를 입증 받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우선 성서언어를 통한 통시적 연구는 각각의 언어에서 번역어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조적 관점에서 한쪽 언어가 다른 쪽 언어에 끼친 영향도 알아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특히 특정한 성서 용어가 어느 쪽 성서에 먼저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새로운 번역어의 출현시점과 관계된 것으로, 김좌대(2000)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한국어 성서용어 중 다수가 일본어 성서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반대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신약성서 로마서 8장 19절의 ‘피조물’과 같은 단어이다.

- (3)a. 만물이하나님의뜻아달나타나물간절이기디리문 <로스역>  
 b. 대개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곤절히 버라는 것은 하늘님의 뜻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니 <舊譯>  
 c.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개역>  
 (피조물의 고대하는바는 하나님의 아달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림이니) <1939>  
 (4)a. それ受造者の切望は神の諸子の顯れんことを俟るなり <明治譯>  
 b. それ造られたる者は, 切に慕ひて神の子たちの現れんことを待つ. <大正譯>  
 c. 被造物は、實に、切なる思いで神の子たちの出現を待ち望んでいる。<口語譯>

(3)과 (4)는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에 ‘피조물(被造物)’이라는 한자조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피조물’은 한국어 성서의 저본으로 취급되는 영어성서와 중국어성서에서는 각각 ‘the creature’와 ‘萬物’로 나와 있다<sup>3)</sup>. 따라서 한국어 로스역성서의 ‘만물’은 중국어 성서를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어 明治譯성서에서는 「受造物」이라는 한자조어가 만들어지나 정착은 못하고 만다. 결국 두 언어 모두 (3b)(4b)에서 보듯이 1910년대 성서에서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고 관형절로서의 표기과정을 거친 후에, (3c)(4c)에서 보는 대로 1950년대 성서에 이르러 '피조물(被造物)'이라는 명사가 각각의 성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서에 등재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어 성서가 훨씬 빨랐다. 그에 대한 근거는 (3c)의 괄호에 있는 1939년 간행 한국어 성서에서 찾는다<sup>4)</sup>. 1939년판 한국어 개역성서는 1954년판 일본어 口語譯성서보다 발간년도가 15년이나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서 번역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연구에 대한 재고를 시사하면서, 그 반대의 상황도 연구대상에 넣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성서 'resurrection'의 번역어인 '부활(復活)'의 생성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증된다. 다음은 누가복음 20장 27절이 번역되고 개역된 과정을 보여준다.

- (5)a. 삿두기인에 말은 다시닐미엎다 흐는지라그날에나아가물어가로되 <로스>
- b. 부활이 엎다 흐는 사도개교인들이 그날에 예수씨 와서 무려 굴으디 <舊譯>
- c.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개역>
- (6)a. 復生なしと言なせるサドカイの人この日イエスにきたり問て <明治譯>
- b. 復活なしといふサドカイ人ら、その日みもとに來り問ひて言ふ <大正譯>
- c. 復活ということはないと主張していたサドカイ人たちが、その日、イエスのもとにきて質問した。 <口語譯>

(5)를 보면, 한국어 성서에서는 로스역(1887)의 경우 동사 '다시닐다'의 명사형 '다시닐미'였던 것이 舊譯(1911)에서 바로 '부활'이라는 명사로 번역된다. 이에 비해 일본어 성서에서는 明治譯(1880)의 '復生'이라는 한자어가 大正譯(1917)에서 '復活'이라는 한자어로 바뀌고 있는데<sup>5)</sup>, 성서의 개역시기를 면밀히 비교하면 일본어 성서에서 그렇게 바뀐 배경에 한국어 성서의 영향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舊譯성서(1911)의 발간이 일본어 大正譯성서

3) a. For the earnest expectation of the creature waiteth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 King James version 1987  
 b. 萬物企望上帝衆子之顯, 1933년 文理譯

4) 한국어 1956년판 개역성경은 1939년에 개역된 것을 한글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번역양상 자체에서는 이들 둘이 동일하다.

5) 일본어 明治譯 성서의 '復生'이라는 한자어는 중국어성서에서 차용된 것이다. 有\*吐\*人,言無復生者就而問曰

(1917)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엄밀히 접근하면 한국어 舊譯성서 중 예문(5)(6)이 나오는 신약성서는 1900년에 이미 개역이 완료되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 이 사실은 더 명백해진다<sup>6)</sup>. 이러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것은 한일 두 나라 성서에 각각 몇 회의 개역본이 있어서 가치 있는 통시적 대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문 (6)을 통해 일본어를 보면, 일본어에서 신생 한자어가 정착되는 과정도 살필 수 있다. 즉 중국어 성서에서 ‘復生’이라는 한자어를 차용해서 「よみがへる(甦る)」의 명사형 「よみがへり」로 읽다가 한자어만 ‘復活’로 바뀐다. 즉 大正譯에서는 이 ‘復活’이 「よみがへり」로 그대로 읽혀지고, 口語譯에 와서 비로소 「ふっかつ」라는 음으로 읽히면서 하나의 단어로 독립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어방식은 한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어 성서의 통시적 연구는 일본어에 새로운 한자어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규명하게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성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체계에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그 비율이나 정도의 변화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종래는 내용에 상호관련성이 없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사용된 어휘분석을 통해 비교했으나, 그것들은 성서처럼 동일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서의 어휘비교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마가복음 1장을 근거로 한자 명사가 어느 정도 출현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sup>7)</sup>.

조사대상은 한국어 성서로는 舊譯(1911)과 개역(1956) 그리고 표준새번역(1993)을, 일본어 성서로는 大正譯(1917)과 口語譯(1954) 그리고 新共同譯(1987)이다. 결과만을 우선 제시하면, 한국어는 번역 시기 순으로 55→51→52개로 큰 변화가 없으나<sup>8)</sup>, 일본어는 21→33→39개로 개역이 거듭될수록 한자어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한자어는 성서번역 이전에 완전하게 정착되었으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명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유어에서 한자어

6) 이렇게 성서의 간행시기를 참고할 때, 한국어 舊譯성서의 ‘감스’가 개역성서에서 ‘총독’으로 바뀐 것은 틀림없이 일본어 大正譯성서의 영향이다.

예수 - 감스 압헤 섰스니 감스가 무려 고투디 <舊譯>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개역>

さてイエス、総督の前に立ち給ひしに、総督問ひて言ふ、<文語訳>

7) 마가복음 1장 출현하는 명사는 한국의 舊譯성서(1911)을 기준으로 보면, 어종에 관계없이 122개 정도 나타났다.

8) 한국어 공동번역성서(1977)의 경우는 동일한 곳에 한자어 64개가 출현하나, 이 성서는 축자역이라는 성서번역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표준새번역(1993)을 선정했다. 한편 개역개정(1998)의 경우는 51개로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둔다.

로의 어휘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다음의 (7)과 (8)은 각각 앞에 기술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에서 마가복음 1장의 한자어를 표출순서대로 나열한 것들이다9).

- (7)a. 복음, 시작, 선지자, 기록, 스자, 예비, 광야, 주, 첩경, 세례, 회기, 전과, 죄, 조복, 석청, 능력, 감당, 성신, 모양, 스십일, 시험, 턴스, 슈종, 괴약, 회기, 회변, 동심, 어부, 안식일, 회당, 권세, 서기관, 귀신, 상관, 도, 순종, 소문, 스방, 장모, 열병, 샤귀, 자, 성, 문, 각식, 허락, 즈기, 미명, 기도, 주, 경계, 제스장, 레물, 증거, 황무디, (계 55)
- b. 복음, 시작, 선지자, 사자, 예비, 광야, 자, 주, 첩경, 기록, 세례, 죄, 회개, 전과, 지방, 자기, 자복, 능력, 석청, 성령, 수종, 사십일, 천사, 시험, 해변, 어부, 형제, 안식일, 회당, 교훈, 권세, 서기관, 귀신, 당신, 상관, 경련, 순종, 소문, 사방, 장모, 열병, 병자, 각색, 허락, 미명, 기도, 진도, 간구, 경계, 제사장, 증거, (51개)
- c. 복음, 시작, 예언자, 기록, 광야, 주, 죄, 용서, 회개, 세례, 선포, 지방, 주민, 고백, 강, 능력, 자격, 성령, 사십일, 시험, 천사, 시중, 어부, 안식일, 회당, 율법학자, 권위, 귀신, 간섭, 당신, 경련, 복종, 주위, 지역, 장모, 열병, 사정, 여자, 병자, 문, 병, 허락, 기도, 일행, 선생, 나병, 환자, 간청, 제사장, 명령, 증거, 사방 (52개)

- (8)a. 福音、預言者、主、全國、聖靈、天、四十日、兄弟、安息日、會堂、學者、權威、聖者、靈、四方、熱、惡鬼、門、癩病人、癩病、祭司 (21개)
- b. 福音、預言者、書、主、全土、全住民、自分、告白、食物、聖靈、天、四十日、兄弟、漁師、人間、安息日、會堂、律法學者、權威、靈、聖者、全地方、熱病、熱、病人、惡靈、付近、全地、諸會堂、皮膚病、注意、祭司、証明 (33개)
- c. 福音、預言者、書、主、使者、準備、洗禮者、洗禮、全地方、住民、告白、聖靈、天、靈、自分、四十日間、誘惑、野獸、兄弟、漁師、人間、一行、安息日、會堂、律法學者、權威、正体、聖者、評判、地方、病人、惡靈、病氣、宣教、皮膚病、注意、祭司、証明、四方 (39개)

우리는 (7)(8)과 같은 한자어 자료만으로도 한자어의 생성 및 소멸 혹은 대체 등의 추적과 더불어 두 언어가 공유하는 한자어 비율의 변화도 알아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단어의 교체 및 생성과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9)a. 이는 엿짐이뇨 새 도로다 <舊譯>
- b. 이는 어쩜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개역> (막1:27)
- (10)a. 預言者イザヤの書に『視よ、我なんぢの顔の前に、...』<大正譯>
- b. 預言者イザヤの書に、「見よ、わたしは使をあなたの先につかわし、...」<口語訳> (マルコ 1:2)

9) 명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일본어 한자어의 경우는 음독만을 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차용어 등은 한자어에 넣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荒野(あらの), 悔改(くいあらため), 關係(かかわり), 駱駝(らくだ)...

즉 (9)를 보면, 한국어 성서에서는 ‘도(道)’ 같은 1음절어가 기피되면서 ‘교훈’으로 바뀌는데, (10)의 일본어 성서에서는 「書」라는 2음절 고유어가 한자의 음독과 함께 1음절어 「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도 두 언어의 음운구조와 단어의 생성 및 소멸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기별로 공유하는 한자어 수도 (11)과 같은 변화를 보이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1)a. (1910년대 성서) 복음, 주, 사십일, 안식일, 회당, 사방, 문 (6개)  
 b. (1950년대 성서) 복음, 주, 성령, 사십일, 형제, 안식일, 회당, 열병, (8개)  
 c. (1980년대 성서) 복음, 예언자, 주, 세례, 지방, 성령, 주민, 고백, 안식일, 회당, 율법학자, 권위, 사방, (13개)

만일에 이러한 조사가 성서의 각 권이나 성서어휘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어종을 비롯한 두 언어의 어휘체계를 상대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공유하는 어휘군의 특징까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서언어의 어휘범주에서는 대명사나 지시어와 같은 특정 어휘군이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도 대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하나로 호칭명사의 변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하기로 한다. 졸고(2007)에서 이미 호칭명사 변화에 나타나는 상대적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주여’라는 호칭명사를 통해 새로운 특징 하나를 찾아보기로 한다. 창세기에 이 호칭명사는 13회 정도 출현하는데, 한국의 舊譯성서(1911)와 일본의 大正譯성서(1917)에서는 ‘주여’·「主よ」 혹은 ‘우리 주여’·「わが主よ」등으로 형태상 유사성이 보인다<sup>10)</sup>. 물론 이들 형태가 모든 출현 장소에서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문 (12)와 같이 일치하는 것도 여러 곳 나타난다.

- (12)a. 쿨으디 주여 전일 우리가 여기 량식을 사러 왔더니 (창43:20)  
 いひけるは主よ我等實に最初くだりて糧食を買ひけり  
 b. 쿨으디 우리 주여 종의 집에 드러와 발을 씻고 줌으시고 일즉이 니러나 떠나쇼셔 (창19:2)

10)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의 ‘주여’ 「主よ」와 ‘내(우리) 주여’ 「わが主よ」 등은 영어성서 등에서 ‘load’와 ‘my load’로 구분되고 있어, 소위 소유격 유무와 관련해 축자역이라는 번역원칙에 따른 것이다.

\*And said, O sir, we came indeed down at the first time to buy food: (창43:20)

\*And he said, Behold now, my lords, turn in, I pray you, into your servant's house, and tarry all night, and wash your feet, and ye shall rise up early, and go on your ways. (창 19:2)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



い わがしゅ こ しむべ いへ のぞ あし あら やど お みち すすみ たま  
 言ひけるは我主よ請ふ僕の家に臨み足を濯ひて宿りつとに起きて途に遄征給へ

이들 호칭표현은 한국어 改譯성서(1956)와 일본어 口語譯성서(1954)에서도 ‘주여·내 주여·우리 주여’ 그리고 「主よ·わが主よ」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각각의 언어문화가 반영된 한국의 공동번역성서(1977)과 일본의 新共同譯성서(1987)에 이르면 (13)(14)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 (13)a.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창18:30)
- b.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창18:3)
- c.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창23:11)
- d. “나리, 우리는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었습니다.”(창43:20)
- (14)a. 「主よ、どうかお怒りにならずに、もう少し言わせてください。」(창18:30)
- b. 「お客様、よろしければ、どうか、僕のもとを通り過ぎないでください。」(창18:3)
- c. 「どうか、御主人、お聞きください。」(창23:11)
- d. 「ああ、御主君様。實は、わたしどもは前に一度、食糧を買うためにここへ来たことがございます。」(창43:20)

(13)과 (14)를 대조해 보면, 한국어 성서에는 ‘손님네들, 영감님, 나리’등 고유어 호칭표현이 ‘주여’를 대체시키고 있는데 반해, 일본어 성서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お客様、御主人、御主君様」와 같은 한자어에서 유래한 호칭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호칭표현에서는 한국어 더 일찍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서언어를 대상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어휘비교를 시도한다면 다른 어떤 자료에 못지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성서언어가 번역어라는 특수한 위상은 지니고 있을지라도, 번역 성서는 지난 100여년 사이에 동일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휘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2.2 통어구조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통어구조의 대조는 곧 술어를 중심으로 문이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대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SOV라는 기본어순을 공유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어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의 표면적 대조만으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 따라서 성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통어구조의 대조는 1차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견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차이의 배경을 규명하는 것은 2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다음은 1950년대 성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15)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갓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目には目を、齒には齒を』と言われていたことは、あなたがたの聞いているところである。

(15)의 밑줄 부분으로, 한국어 ‘하였다’라는 능동표현이 일본어성서에서는 「言われる」라는 수동표현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이 대조자료에 의한 1차적 통어구조의 차이점 추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료의 통시적 접근은 언어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가령 (15)의 인용문을 1910년대 성서에서 대조확인하면, (16)과 같다.

(16) 또 히신 말씀을 너희가 드렸느니 눈은 눈으로 잡고 이는 이로 잡흐라 히엿스나

「目には目を、齒には齒を」と云へることあるを汝ら聞けり。

(16)을 보면, 일본어도 1910년대 성서에서는 능동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양쪽 모두 능동표현이었던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일본어문은 수동표현으로 변형된 것이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이 필요하겠지만, 자료에 의한 대조연구는 여기까지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예문 (17)은 표준새번역성서(1993)과 新共同譯성서(1987)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17)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だから、人にしてもらいたいと思うことは何でも、あなたがたも人にしなさい。

한국어 성서의 ‘대접을 받다’라는 부분이 일본어 성서에서는 「してもらう」형태로 나타난다. 바꿔 말해, 동일한 표현을 한국어는 ‘받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를 고용하면서 ‘대접’이라는 명사와 조화를 시키는데, 일본어는 「ってもらう」라는 유사수동 형태를 써서 명사 없이 처리하고 있다. 한국어의 이러한 현상은 문법적 수동의 생산성이 낮은 한국어의 특성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속성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 「ってもらう」라는 일본어의 유사수동 형태이다. 왜냐하면 본고처럼 일본어 「ってもらう」를 유사수동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일본어 성서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납득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다.

すべ ひと せ おも ひと また こと

(18)a. さらば凡て人に爲られんと思ふことは、人にも亦その如くせよ。〈大正譯〉

b. だから、何事でも人々からしてほしいと望むことは、人々にもそのとおりにせよ。〈口語譯〉

(17)의 일본어문과 동일한 표현이 (18a)의 일본 大正譯성서에서 「爲(す)」의 수동사 「爲(せ)らる」로 나타난 데에서 확인된다. 즉 1910년대 성서의 문법적 수동표현이 1980년대 성서에서 「てもらう」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수동 형태로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8b)의 「てほしい」 역시 유사수동 형태임이 확인됨과 동시에, 이들 성서의 간행년대로 보아 「てほしい」나 「てもらう」와 같은 유사수동 형태가 일본어에 정착된 시점이 그리 오래지 않음도 알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통시적 대조자료의 가치가 된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한국어 ‘는’과 ‘가’, 일본어 「は」와 「が」의 관계를 성서언어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기로 한다. 필자의 줄고(2005)에서는 1950년대라는 공시적 관점에서 두 언어의 성서비교를 통해, 한국어는 주어 ‘가’가 중심이 되는 언어구조인 반면에 일본어는 주제 「は」가 중심이 되는 언어구조임을 통계적 근거를 갖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시간과 더불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참고로 줄고(2005)에서 명확히 규명된 것을 제시하면 이렇다. 즉 久野暉(1973)가 주장하는 「は」와 「が」의 의미가 이론상으로는 그대로 한국어 ‘는’과 ‘가’에도 적용되나, 자료에 의한 실질적인 검증에 근거하면 일본어 「は」의 위치에 한국어는 ‘가’가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는 구조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문 (19)와 같은 경우이다.

(19)a. 彼らはその星を見て、非常な喜びにあふれた。(マ2:10)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b. そこで、ヨセフは、立って、夜の間<sup>11)</sup>に幼な子とその母とを連れてエジプトに行き、(マ2: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필자(2005)가 1950년대 성서대조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장에는 대조가 가능했던 조사가 29개 나왔고, 그 가운데 13개가 예문 (19)처럼 일본어 조사 「は」의 위치에 한국어는 ‘가’가 출현하고 있었다. 반대의 경우, 즉 일본어 「が」의 위치에 한국어 ‘는’이 오는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시적인 대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다음의 <표1>은 1910년대, 50년대, 80년대 성서 마태복음 2장에 ‘는’과 ‘가’, 「は」와 「が」가 각각의 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sup>11)</sup>.

11) 마태복음 2장을 모델로 삼은 것은 필자(2005)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한국어)				(일본어)				<표1>
	舊譯	개역	공동번역		大正譯	口語譯	新共同譯	
는	3	3	11	は	8(20)	18	20	
가	27	29	25	が	2(11)	17	18	

<표1>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공동번역(1977)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가’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는 口語譯(1954)부터는 「は」와 「が」의 출현빈도가 유사하지만, 大正譯(1917)에서는 「は」가 월등히 많았음을 볼 수 있다.

통시적 대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것이 비교기준이 되는 바, 우선 한국어 舊譯성서와 일본어 大正譯성서에 나타난 특징을 보기로 한다. (19)처럼 일본어 「は」의 위치에 한국어는 ‘가’가 오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표1>의 大正譯 성서에 마태복음 2장에서 「は」가 8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4개가 한국어에서는 ‘가’나 그 이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예문 (20)이다.

- (20)a. イエスはヘロデ王の時、ユダヤのベツレヘムに生れ給ひしが、  
 헤롯왕 때에 예수씨서 유대 벳을네헴에서 나시니(마2:1)
- b. ユダヤ人の王として生れ給へる者は、何處に存すか。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간 어디 계시뇨(마2:2)
- c. ここに預言者エレミヤによりて云はれたる言は成就したり。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히신 말씀이 일우엇느니 (마2:17)
- d. 『幼児の生命を索めし者どもは死にけり。』  
 아기의 목숨을 해히려히던 사람들의 죽엇느니라(마2:20)

필자는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が」를 격조사로 그리고 「は」를 계조사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문법에서는 소위 모달리티와 관련해 「が」는 객관적인 소재의 기능을 하는 반면에, 「は」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が」와 「は」에 의해 유도되는 문은 각각 현상문과 판단문으로 나눈다. 그런데 한국어문에는 ‘가’가 많고 일본어문에는 「は」가 많다는 사실을 한일 대조연구라는 본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본인들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이 한국인에게는 객관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발상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결국 두 언어권의 발상 곧 문화의 차이가 언어에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 「は」중심이나 혹은 ‘가’중심이나 하는 언어구조이다. 대조언어학의 자료로서 성서가 갖는 가치는 이러한 점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상호간섭 없이 독자적인 문법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잠깐 <표1> 일본어 大正譯 성서의 괄호 안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は」와 「が」의 생략이 많은 것이 일본어 大正譯 성서의 특징 중 하나이며, 예문 (21)과 같은 경우이다.

- (21)a. <sup>おう</sup>ヘロデ<sup>王</sup>(<sup>は</sup>これ<sup>を</sup>聞いて<sup>悩</sup>みまどふ、(2:3)  
み ひがし はかせ きた い
- b. 視よ、東の博士たち(<sup>が</sup>)エルサレムに來りて言ふ(2:2)

마태복음 2장에만 21개의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들을 口語譯 성서 (1954)에 근거해 복원시켜 보면, 「は」와 「が」가 각각 12개와 9개씩으로 복원된다<sup>12)</sup>. 따라서 <표1> 괄호 속의 수치는 각각 표출된 것과 복원된 결과를 합한 것이다. 조사의 생략은 한국어 舊譯성서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공통성을 보여주지만, 한국어에서는 예문 (22)처럼 ‘가’ 종류로만 복원될 뿐 ‘는’으로 복원되는 예는 없었다. 예문(22)가 개역성서와의 비교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 (22)a. 왕이 모든 제스제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화 그리스도 — 어더서 낫갯는노 무르니(마2: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더서 나갯는노 물으니)
- b. 예수 —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는지라 (마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예문 (22)에서 한국어의 생략된 조사 위치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일본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성서에서의 조사 생략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일본어는 21개가 생략된 반면에 한국어는 (22a)의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성서가 개역되면서 이들 조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즉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출현조건인데 불구하고 성서의 개역과 더불어 조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본 문법학자들의 용어를 원용해서 설명하면, 현상문이 판단문으로 바뀌든가 혹은 판단문이 현상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조사가 선택되느냐 하는 것이 문맥의 상황에 있지 않고 화자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제나 중립서술, 혹은 신정보나 구정

12) 「は」로 복원되는 것: 我ら(2), <sup>われ</sup>ヘロデ<sup>王</sup>(3), 王(4), <sup>おう</sup>かれら(5), <sup>おう</sup>ヘロデ(7), 彼ら(9), <sup>われ</sup>かれら(10), ヨセフ(14), <sup>これ</sup>これ(15), <sup>は</sup>ヘロデ(16), <sup>ひとり</sup>ラケル(18), <sup>きみ</sup>ヨセフ(21)は、

「が」로 복원되는 것: 東の博士たち(2), 一人の君(6), 星(9), 主の使い(13), <sup>は</sup>ヘロデ(13), 聲(18), <sup>は</sup>ヘロデ(19), 主の使い(19), <sup>は</sup>アケレオ(22). (괄호는 2장에서 표출하는 절: 필자 주)

보 등 久野(1973)에서 말하는 이들 조사의 문법적 의미도 결국은 화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불과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성서처럼 통시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에서만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23)(24)를 통해서 보기로 한다.

- (23)a.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2:2)
- b.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26:34)
- c.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마2:7)
- d. 이 말을 듣고 대사제<sup>가</sup> 자기 옷을 찢으며  
 그 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마26:65)
- (24)a. 彼らは王の言うことを聞いて出かけると、 <口語訳>  
 彼ら<sup>가</sup>王の言葉を聞いて出かけると、 (마2:9) <新共同訳>
- b. するとペテロ<sup>は</sup>イエスに答えて言った、「たとい、みんなの者があなたにつまずいても、...」  
 するとペテ로<sup>가</sup>、「たとえ、みんながあなたにつまずいても、...」(마26:33)
- c. 斧<sup>が</sup>すでに木の根もとに置かれている。  
 斧<sup>は</sup>既に木の根元に置かれている。(마3:10)
- d. そこで多くの偽証者<sup>が</sup>出てきたが、証拠にあがらなかった。  
 偽証人<sup>は</sup>何人も現れたが、証拠は得られなかった。(마26:60)

(23)은 각각 한국어 공동번역성서(1977)과 표준새번역성경(1993), (24)는 일본어 口語譯성서(1954)와 新共同譯성서(1987)에서 일부 추출한 것들이다. (23)(24)에서 비교되는 한일 성서들은 각각 문체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a)(23b)에서는 ‘는’이 ‘가’로 바뀌었고, (23c)(23d)에서는 ‘가’가 ‘는’으로 바뀌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24a)(24b)에서는 「は」가 「が」로 바뀌었고 (24c)(24d)에서는 「が」가 「は」로 바뀌어 있다.

한편 이런 변화를 성서의 개역본별로 개관해 보면, 변화에 커다란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표1>로 되돌아가서 보면, 한국어는 개역에서 공동번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 ‘는’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고, 일본어는 大正譯에서 口語譯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어와는 반대로 「が」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성서는 1970년대 그리고 일본어 성서는 1950년대 성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변화의 시기는 다를지라도, 성서언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음의 예문 (25)(26)을 통해 그 배경을 설명한다. 예문 (25)(26)은 한국어는 개역에서 공동번역으로, 일본어는 大正譯에서 口語譯으로 개역되는 과정에 나타난 조사 변화를 마태복음 2장에서 추출한 것이다.

- (25)a.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마2:21)  
 b.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요셉은 일어나서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예집트로 가서 (마2:14)
- (26)a.ここに預言者エレミヤによりて云はれたる言は成就したり。  
 こうして、預言者エレミヤによって言われたことが、成就したのである。(마2:17)  
 b. イエスはヘロデ王の時、ユダヤのベツレヘムに生れ給ひしが、  
 イエスがヘロデ王の代に、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お生れになったとき、 (마2:1)

한국어문 (25)에서는 ‘이’가 ‘은’으로 바뀌고 있고, 일본어문 (26)에서는 「は」가 「が」로 바뀌고 있어 변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5)(26)의 출처가 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반대로 나타나는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어는 공동번역(1977)에서 ‘는’의 세력이 확장되고, 일본어는 口語譯(1954)에서 「が」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던 이들 조사의 분포범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 만일 ‘는’과 ‘가’ 그리고 「は」와 「が」에 의한 문의 전개가 동일한 사건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발상’ 방식과 관련된다면, 그만큼 두 언어권의 발상이 점점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적 표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는’이나 ‘가’, 「は」나 「が」의 선택은 문맥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발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성서 자료에 나타난 통시적 변화를 언어이론과 연계한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서언어는 이만큼 두 언어의 통어현상을 대조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다음의 <표2>는 한국어 공동번역(1977)과 일본어 新共同譯(1987)의 마태복음 2장에서 이들 조사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고, <참고>는 필자(2005)에서 한국어 개역(1956)과 일본어 口語譯(1954)를 비교했던 데이터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 ‘가’의 위치에 일본어는 「は」가 옴으로서 차이를 보이던 것이 1950년대 성서에서는 13개였으나, 1980년대 성서에서는 7개로 크게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한국어 vs 일본어	통계치
공통	‘는’ vs 「は」	8
	‘가’ vs 「が」	15
차이	‘는’ vs 「が」	1
	‘가’ vs 「は」	7
계		31

(한국어 공동번역과 일본어 新共同譯)

<참고>

	한국어 vs 일본어	통계치
공통	‘는’ vs 「は」	3
	‘가’ vs 「が」	13
차이	‘는’ vs 「が」	0
	‘가’ vs 「は」	13
계		29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口語譯)

### 2.3 사회언어학적 대조자료로서의 성서

사회언어학은 사회와 언어의 상호관계학이다. 즉 언어의 변이현상이 사회적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때문에 사회언어학은 실제적인 언어변이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field work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한국과 일본에 발달된 대우표현이 연령, 성별을 비롯한 대화참여자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어떤 형태로 달리 표현되는가 등을 본다.

그러나 field 없는 사회언어학 접근도 객관적인 자료만 갖춰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성서언어는 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 신혜경(1997)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성서 속의 대화문이 비교분석되고 있다. 그의 결론은 성서언어에서 밝혀진 사실이 field work을 통해 얻어진 사실과 동일해서, 한국어는 절대적 경어가 강하고 일본어는 상대적 경어가 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성서언어는 표현의 절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를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절제된 표현이기 때문에 각 언어의 상대적 특징 중 핵심적인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2005) 역시 1950년대 성서를 자료로 두 언어의 경어형태 출현위치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가령 예문 (27)처럼 한국어는 주제만 높임 대상이면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관계없이 모든 술어에 경어형태가 출현하는데 반해 일본어는 주로 주절의 술어에서만 출현한다든가, (28)처럼 주절이라도 한국어문에 경어형태가 출현했다고 해서 일본어문에도 꼭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이다.

(27)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마4:12)

イエスはヨハネが捕えられたと聞いて、ガリラヤへ退かれた。

(28)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16:16)

シモン・ペテロが答えて言った、「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사회언어학의 연구대상이다. 그런데 한일 두 나라의 성서는 몇 회의 개역본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성서언어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현상의 시대별 변이추이 및 검증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례로 성서에서 성격이 다른 몇 그룹의 사람과 예수와의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성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서 인물 중 주인공이다. 신약성서 4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 바<sup>13)</sup>, 그 중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예수와의 대화상대자를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의 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룹은 우선 셋을 설정한다. 하나는 일반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육친의 형제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를 재판한 로마의 총독이다. 예문 각각에서 인용되는 성서는 나열순서에 따라 한국어는 舊譯(1911), 개역(1956), 공동번역(1977)이고, 일본어는 大正譯(1917), 口語譯(1954), 新共同譯(1987)이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9~50절에 있는 일반인과 예수와의 대화 장면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인은 두 나라 성서에 각각 ‘신하’ ‘고관’이나 「近臣」 「役人」(이하 ‘고관’으로 표기)등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보아 상당한 신분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예문 (29)(30)이다.

- (29)a. 신하가 고투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느러오쇼서 흐거늘 예수— 고투사되 도라가라 아들이 살았다 흐신되 그 사람이 예수의 흐신 말씀을 밋고 가더니 <舊譯>  
 b.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러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밋고 가더니 <개역>  
 c. 그래도 그 고관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하시니 그는 예수의 말씀을 밋고 떠나갔다. <공동번역>
- (30)a. 近臣いふ『主よ、わが子の死なぬ間に下り給へ』イエス言ひ給ふ『かへれ、汝の子は生くるなり』彼はイエスの言ひ給ひしことを信じて帰りが、<大正譯>  
 b. この役人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どうぞ、子供が死なないうちにきてください」。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お帰りなさい。あなたのむすこは助かるのだ」。彼は自分に言われたイエスの言葉を信じて帰って行った。<口語譯>  
 c. 役人は、「主よ、子供が死なないうちに、おいでください」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帰りなさい。あなたの息子は生きる。」その人は、イエスの言われた言葉を信じて帰って行った。 <新共同訳>

자식의 병 때문에 예수를 찾은 어느 고관이 예수에게 정중한 표현을 구사하

13) 신약성서의 4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킨다.

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다. 한국어 (29a)(29b)와 (29c), 혹은 일본어 (30a)와 (30b)(30c)처럼 표현의 기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시대나 문체에 따른 변이이겠지만, 모두가 정중한 경어체라는 사실만은 일치한다. 그리고 그 고관을 향한 예수의 표현 역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보통체라는 점에 일치를 보인다. 즉 ‘가라’ ‘돌아가거라’ 혹은 「かえれ」 「(お)帰りなさい」 등 보통체 명령형을 구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어형태가 없는 그리스어나 영어 성서를 대우표현이 발달한 한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은 이러한 대우표현을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의 번역자들은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음을 전제했었고, 따라서 예수는 보통체를 구사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예문 (29)(30)은 이러한 인식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통적으로 대우표현이 발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존칭상대에 대한 인식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문 (31)과 (32)는 이런 것을 잘 보여준다. 예문 (31)(32)는 예수의 육친의 동생들이 예수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먼저 한국어문이다.

- (31)a. 그러므로 예수의 동생들이 날으되 여기서 쉼나 유대로 가서 데즈들노 호여곰 당신의 헝헝는 일을 보게 호쇼서 일흠이 나타나기를 구호면서 못쳐서 일호는 사람이 업느니 이 일을 헝헝라거든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라 흠은 <舊譯>
- b.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개역>
- c. “이 곳을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31)의 밑줄 부분을 보면, 모두가 정중한 어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언어습관이 반영된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중한 어투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31a)(31b)의 ‘-쇼서(-소서)’와 (31c)의 ‘-십시오’의 차이는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언어변이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어는 이 부분에서 한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32)a. 兄弟たちイエスに言ふ『なんちの行ふ業を弟子たちにも見せんために、此處を去りてユダヤに往け。誰にても自ら顯れんことを求めて、隱に業をなす者なし。汝これらの事を爲すからには、己を世にあらわせ』 <大正譯>

- b. 「あなたがしておられるわざを弟子たちにも見せるために、ここを去りユダヤに行ってはいかががです。自分を公にあらわそうと思っている人で、隠れて仕事をするもの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これらをするからには、自分をはっきりと世にあらわしなさい」。<口語訳>
- c. 「ここを去ってユダヤに行き、あなたのしている業を弟子たちにも見せてやりなさい。公に知られようとしながら、ひそかに行動するような人はいない。こういうことをしているからには、自分を世にははっきり示しなさい。」<新共同訳>

우선 (32) 전체를 개관해 보면, (32a)에서 「往け」 등 보통체로 표현되던 것이 (32b)에서는 「いかがです」 등 정중한 문체로 바뀌었다가 (32c)에 와서는 다시 「やりなさい」 등 보통체로 바뀌고 있다. 한국어와 달리 (32a)(32c)에서 보통체가 쓰이는 것은 상대가 자기 가족이라는 소위 「ウチ」의 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어용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는 연령이나 신분의 차이가 경어사용의 1차적 기준이 되나, 일본어에서는 그러한 수직적 관계에 앞서 화자와의 친소관계가 경어사용의 우선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口語譯 성서에서 일시적으로 「ます · です」체가 보였다 할지라도, 新共同譯에서 다시 보통체로 회귀했다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준다<sup>14</sup>).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ます · です」체가 발견되는 (32b)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리 예수가 육친의 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신분을 의식한 탓일까, 아니면 일본어 口語譯 성서가 개역되던 1950년대 일본사회의 언어습관이 반영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한국어와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의문은 성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33)a.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눅2:48)
- b.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없다 하니 (요2:3)
- (34)a. そして母が彼に言った、「どうしてこんな事をしてくれました。ごらんください、おとう様もわたしも心配して、あなたを探していたのです」。
- b. ぶどう酒がなくなったので、母はイエスに言った、「ぶどう酒がなくなってしまうした」。

(33)(34)는 모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다만 (33a)(34a)는 예수가 어렸을 때의 일화이고, (33b)(34b)는 예수가 성인이 되어

14) 일본의 大正譯 성서 평서문에는 「ます · です」를 대신할 「候う」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서문에서 보통체와 정중체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なんぢはキリスト、生ける神の子なり』(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 (마16:16)

공적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33)과 (34)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 보통체로 구사되고 있는 부분이 일본어에서는 정중체로 표현되고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만일 한국어 (33a)의 경우를 정중한 문체로 바꾸어서,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습니다”로 하면, 비문이 되어 버린다. 거기에는 ‘아이야’라는 호칭이나 ‘너’라는 대명사 등과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어 (34a)의 경우라면 이것을 보통체로 바꾸어, “そして母が彼に言った、「どうしてこんな事をしてくれたの。ごらんない、おとう様もわたしも心配して、あなたを探していたの。」”라고 해도 일본어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표현의 버라이어티가 많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상황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에서 손윗사람일지라도 상대가 「ウチ」에 속한 사람인 경우는 보통체를 쓴다는 것은 여러 표현의 변종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32b)에서 예수 동생들의 형에 대한 정중표현 혹은 경어표현이 이해된다. 정중체인 (32b)도 보통체인 (32c)도 변종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2b)나 (34)처럼 「ウチ」에 속한 사람끼리의 대화에 정중체를 구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든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2)나 (34)에서의 거리감은 역시 예수가 육친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임을 일본의 번역자들이 의식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와 예수를 재판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대화장면을 통해 두 나라 언어습관의 차이 또 하나를 살피기로 한다. 요한복음 18장 33~34절에서 인용한다.

- (35)a.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다시 궁중에 드러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 대답하시되 이 말은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내게 말하더뇨 <舊譯>
- b.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개역>
- c.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게 관하여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하고 반문하셨다. <공동번역>

- (36)a. (くわんてい い よ いだ い びと わう)  
 ここにピラ토また官邸に入り、イエスと呼ば出して言ふ、『なんぢはユダヤ人の王なるか』  
こた たま なんぢ い はた こと ひと なんぢ つ  
 イエス答へ給ふ『これは汝おのれより言ふか、将わが事を人の汝に告げたるか』 <大正譯>

- b. さて、ピラトはまた官邸にはいり、イエスを呼び出して言った、「あなたは、ユダヤ人の王であるか」。いえすは答えられた、「あなたがそう言うのは、自分の考えからか。それともほかの人々が、わたしのことをそう言ったのか」。<口語訳>
- c. そこで、ピラトはもう一度官邸に入り、イエスを呼び出して、「お前がユダヤ人の王なのか」と言った。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あなたは、自分の考えで、そう言うのですか。それとも、ほかの者がわたしについて、あなたにそう言ったのですか。」<新共同訳>

성서에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재판에 붙여진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 중에 한국인의 언어감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본어 성서에서 찾아진다. 바로 (36c)의 「～です」로 종결되는 문말표현이다. (35)의 한국어 번역 성서 전부와 일본어 성서 (36a)(36b)에서 빌라도를 향한 예수의 답변은 “～말이뇨”와 「～言ったのか」등 하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 성서 (36c)에서 이것이 「～言ったのですか」라는 정중한 문체로 바뀌고 있는 바, 이것은 작금의 한국인 언어감각으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변화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주관자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중한 문체를 구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본의 新共同譯 성서개역위원들은 그 문체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어와 다른 일본어 표현의 버라이어티이다.

물론 한국어에 언제까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문화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언어표현도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어문 (36c)와 같은 것이 일본적인 것으로 계속 구분되어 남을지 아니면 앞으로 한국어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언어학도 성서언어와 같은 통시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데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문을 하나 보기로 한다.

- (37)a. み ひとり らいびやうにん きた はい い しゆ みこころ われ きよ  
 視よ、一人の癩病人たまたまみもとに來り、拜して言ふ『主よ、御意ならば、我を潔くえな  
 し給ふを得ん』<大正譯>
- a'. すると、そのとき、ひとりの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ひとがイエスのところにて、ひれ伏して言った、「主よ、みこころでしたら、きよめていただけるのですか」。(마8:2) <口語訳>
- b. 盲人は見え、足なえは歩き、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人はきよまり、耳しいは聞こえ、...<口語訳>
- b'. 目の見えない人は見え、足の不自由な人は歩き、重い皮膚病を患っている人は清くなり、耳の聞こえない人は聞こえ、... (마11:5) <新共同訳>
- (38)a.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개역>
- a'.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고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공동번역>

- b. 소경이 보며 얇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  
 <개역>
- b'.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  
 <공동번역>

일본어 성서에서 「<sup>らいびやうにん</sup>癩病人」이나 「盲人」과 같은 표현이 「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ひと」나 「目の見えない人」등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직접 당사자인 문둥병자나 장님 등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가 조금 더 복지사회로 바뀐다면 한국어에도 이런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언어현상 중 일부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하기 때문에, 성서언어의 통시적 분석은 이런 변화까지도 볼 수 있게 한다.

### 3. 결 론

본고는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가 두 언어의 대조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입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고에서 활용된 주된 성서는 두 나라 모두 성서번역위원회 혹은 성서개역위원회에 의한 것들로, 한국어 성서로는 舊譯(1911)과 개역(1956),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이었고, 일본어 성서로는 明治譯(1880)과 大正譯(1917), 口語譯(1954), 新共同譯(1987)이었다.

이하 본고의 연구내용을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성서언어는 두 나라 근대어의 변천과정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필자는 어휘항목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 결과 성서언어는 기본적으로 번역어인 만큼, 새로운 번역어의 생성과정에서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필 수 있었고, 100여년 사이에 두 언어의 어휘체계에 나타나는 변화추이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성서언어는 두 언어 통어구조의 본질적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변화양상까지도 추적가능하게 하는 대조자료가 된다는 점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제어와 주어의 분포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를 확인했다. 초기 번역성서 대조에서는 한국어가 절대적으로 주어 중심의 언어구조였던 데에 반해, 일본어는 주제어 중심의 언어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최근에 개역된 성서대조에서도 유지되지만,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편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음을 성서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서언어는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언어표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대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성서의 주인공인 예수와의 대화상대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 시대별로 표현방식을 분석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그 타당성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연구결과는 성서언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킴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성서언어가 두 나라의 근대어 대조자료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 【参考文献】

(성서)

-한국어-

- 로스역 신약(1887)
- 舊譯(1911), 번역위원회
- 신약 역개(1939), 조선성서공회
- 改譯(1956), 대한성서공회
- 공동번역(1978), 대한성서공회
- 표준새번역(1993), 대한성서공회
- 개역개정(1998), 대한성서공회

-일본어-

- 明治譯(1888), 翻譯委員社中
- 大正譯(1917), 聖書改訳委員會
- 口語訳(1955), 日本聖書協會
- 新共同訳(1987), 日本聖書協會

-중국어-

- 文理譯(1933), (中國) 聖書公會印發

-영어-

- King James Version(1987)

(논문 및 저서)

- 金佐代(2000).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개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 감리교신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옥진(1999). 『회랍어 성경연구』, 성산출판.
- 閔泳珍(1980).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한 고찰 - 대응어 선택에서 본 번역문의 성격」 『基督教思想』 9월.
- \_\_\_\_\_(1984). 『國譯聖書研究』, 성광문화사.
- 대한성서공회(1993) 『대한성서공회사 I』 p.46~60
- 대한성서공회(1994) 『대한성서공회사 II』 p.27~90
- 대한성서공회(1995)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p.43~53
- 민영진(1984). 『國譯聖書研究』, 성광문화사.
- 민영진·전무용. ‘한국어 번역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호, 대한성서공회
- 申惠環(1997). ‘성서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표현의 비교연구’, <사회언어학>5-2, 한국사회언어학회



- 元榮喜(2001). 『한역성경의 표현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안증환(2004). ‘기도문 비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 『일본문화학보』 21,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05). ‘성경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1) -1950년대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27,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07). ‘성서언어의 호칭에 대한 한일비교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 성서 연구 -’ 『일본문화학보』 34, 한국일본문화학회
- 이덕주(1985).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이덕주(1986).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기독교와 민족운동』, 圖書出版 保聖
- 장보웅(2006). 『원문직역 헬라어 분해 대조 성경』, 로고스
- 전무용(2000). ‘성서 번역과 국어문체-첨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6).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호, 대한성서공회
- 정길남(1992).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p.81~108
- \_\_\_\_\_ (1995).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박이정출판사.
- 편무진(2005).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제이앤씨. p.13~22
- 한미경(1998b). ‘初期聖書翻譯과 關聯研究의 諸問題 考察’, 『書誌學研究』 15, 書誌學會.
- 廣 剛(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22~26
  
- 中沢洽樹(1971). ‘聖書翻譯の諸問題’, <聖書翻譯研究>3. 日本聖書協會.
- 安田 章(1980). 『朝鮮資料と中世国語』, 笠間書院.
- 関根文之助(1982). 『聖書のことばと日本語』, 福永書店. p.37~42
-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譯史』, 新教出版. p.108, p.205~209
- 海老沢有道(1989), 『日本の聖書』, 講談社. p.225~230
- 土岐健治(1993). ‘邦訳聖書の源流としての漢訳聖書’, 『しにか』 9月号, 大修館書店.
- 川島第二太郎(1993). ‘初期の日本語聖書と中国語聖書’, 『しにか』 11月号, 大修館書店.
- 田中奈央(2000). ‘明治期における聖書の翻訳’, 『日本文学』 94, 東京女子大学学会日本文学部会編.

## 要 旨

本稿の目的は韓国語聖書と日本語聖書とが二言語の対照研究において大事な資料になりうることを通時的な観点から立証することである。この研究で引用された主な聖書は二言語共に聖書翻訳委員会または聖書改訳委員会によるもので、韓国語聖書としては旧訳(1911)と改訳(1956)・共同翻訳(1977)・標準新翻訳(1993)等であり、日本語聖書としては明治訳(1887)と大正訳(1917)・口語訳(1954)・新共同訳(1987)等である。

本稿では二言語の聖書から次の三つの対照を通じ上の目的に接近しようとした。一番目は、二国の近代語の変遷のあり方である。この論文では語彙項目を中心として新しい語の生成と変化、漢字語の分布の変わりなどを対照してみた。二番目は、去る100年間、二言語の統語構造に起こった変化のうち特徴的なことは何であ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論文では各々の言語において主題と主語を示す「는」と「가」・「は」と「が」の分布の変わり方を対照し、その結果を分析した。三番目は、同じ場面での表現が翻訳時期によってどんなふうに変わってきたかという、ある意味で社会言語学的なことである。聖書には様々な人々が様々な場面で交わっている会話文があるからである。この論文ではイエスと話しあう相手を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分け、グループごとの言い方が翻訳聖書ごとにどう変わってきたかを対照してみた。

本稿での研究結果は聖書が韓国語と日本語の通時的な研究資料として非常に有益なものになりうることを十分証明したと思うのである。従って、これから聖書言語をもつての韓日対照研究がより盛んに行なわれてほしい。

キーワード：聖書言語、通時的な観点、旧訳、改訳、共同翻訳、  
標準新翻訳、明治訳、大正訳、口語訳、新共同訳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300-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629-7340  
e-mail : ajw7340@hanmail.net